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5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사운드시티, 인천

Interview

인천밴드연합회 정유천 회장과의 만남



IDI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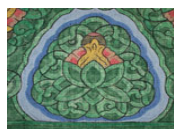
공사·공단과 시정현안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
배)은 기획본부 주관으
로 관내 공사·공단과의
직접...

Zoom 人



최초의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
우현 고유섭
(1905~1944)은 처음으
로 한국의 미학미술사를
전공한 ...

Zoom INcheon



해명당청박물관_오색
오채 단청과의 행복한
인연
인천 중구 '개항장 문
화지구'에 위치하고
조금 걸어가면 신포시
장과 가까...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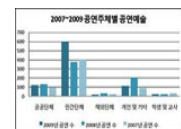
'창조적인 문화 도
시'로 재탄생한 비틀
즈의 고향, 리버풀
영국 북서부 랭커셔
주에 위치한항구 도시
'리버풀'은 유럽을 대
표하는 ...

IDI 연구



인천엔아트 발전방향
에 관한 사례연구
이번 연구는 2009년도
에 조사된 것으로, 인
천엔아트 사업이 현재
존립...

인천지표



인천의 공연예술분야
현황
2010년 6월에 인천문
화재단이 발간한 2009
년 인천문화예술연감
에 따...

사운드시티, 인천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5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사운드시티, 인천

- 지자체 '도시개발정책' 아이টেম으로써의 대중음악

박준홍 대중음악SOUND 발행인&편집인

한

국에서 지자체가 '도시개발정책'의 일환으로써 '대중음악'을 사업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그간 세 번 있었다. 그리고 어쩌하다보니 개인적으로는 그 세 번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상황이다.

첫 번째는 광명시의 경우인데, 민선 2~3기 시장을 지낸 백재현시장이 2000년 무렵 '음악도시'를 표방하면서 대중음악을 과감하게 핵심적인 도시개발정책으로 정했다. 알다시피 2000년은 한국에서 음반시장이 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시기여서 '대중음악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광명시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또한 김대중정부 들어서서 '문화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이 만들어졌고, 각 지자체마다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을 문화산업 아이টেম으로 택한 것처럼 광명시는 '대중음악'을 문화산업 아이টেম으로 택했다. 급기야 2002년 민선 3기 시장선거에서는 '음악도시' 계획에서 발전된 음악산업적인 개념의 '광명음악밸리' 사업을 공약으로 내놔고, 이는 KTX 광명역사 주변을 음반유통, 음악기획사, 음악아카데미, 음악박물관, 음악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대중음악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4년에 제1회 광명월드뮤직페스티벌을 만들었으나 적절치 못한 기획과 진행으로 평가받으면서 중단되었고, 2005년에는 사업명을 축제 이름으로 만든 '광명음악밸리축제'가 탄생했다. 이 축제 개발과 기획&운영을 내가 맡았는데, 한국에서는 지자체 도시개발정책을 직접적으로 축제화 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광명음악밸리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광명시가 왜 음악도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지역 내에서 제기되었고, 결국 몇 년 뒤 광명시가 '광명음악밸리' 사업을 포기하면서 축제도 중단되었다.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인데, 2004년 무렵부터 진행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5대 콘텐츠에는 '음악'이 있었고, 그로 인해 '광주아시아음악타운' 사업이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협력 관계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아시아음악타운' 사업은 2006년 무렵부터 본격화되었는데, 2004년 광명시의 정책개발팀에서 내놓은 「광명음악밸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구성」, 「광명첨단음악밸리 조성 관련 경제성 분석 및 기대효과 연구」와 같은 연구보고서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였고, 역시 '도시개발정책' 차원으로 '대중음악'을 선택한 것이다. 광명시와 마찬가지로 이 계획안에는 음악기획사, 음악아카데미, 음악연구소, 음악박물관, 음악공연장과 관련된 세부계획이 있었고, 음악산업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국제 규모의 음악축제와 음악어워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홍보하면서 랜드마크화 하려는 생각도 있었다. 광명시가 '국제화'의 수단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주도인 오스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 곳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축제인 SXSW와 연결고리를 갖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광주광역시는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네트워크를 중시했다. 그 결과 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의 민속음악을 음악축제의 주요 콘텐츠를 삼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2010년 8월에 런칭시켰다. 재미있는 것은 대중음악을 도시개발정책으로 삼는 곳은 내용적으로든 아니면 이름만이든 '월드뮤직페스티벌'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광주아시아음악타운 사업은 그간 표류하다가 최근에는 뮤직비즈니스센터, 음악박물관, 음악아카데미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소리문화산업육성'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도 광명시의 경우처럼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광주에서 왜 음악산업을 시도하는가?"라는 질문이 지역 내에서 제기되었고, 그래서 '남도소리의 본고장', '1970~1990년대 충장로 음악타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직동의 포크뮤직 거리' 등을 논리적으로 내세운다. (이 때부터 내가 2008년에 제3회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총감독을 맡았을 때 '광주 포크 30년'을 프로그램으로

넣었고, 관련해서 CD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얘기하겠다. 2010년 민선 5기 송영길시장은 “청각예술 및 음악 관련 분야의 인천의 경쟁력(국내 최대 악기제조업체 밀집지역)과 취약점(국내 유일의 음악대학 없는 도시)을 개선하여 보다 구체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시정공약 대표사업으로 ‘사운드시티(sound city)’를 선정했다. 이 사업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작년에 기존의 록페스티벌에 아츠페스티벌, 프린지페스티벌을 추가하여 새롭게 개발한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 총감독직을 수행하는 와중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인천광역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라는 중차대한 국제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2012~2013년에 국제 규모의 문화예술 이벤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의 딜레마는 시간과 예산의 문제로 새로운 행사를 런칭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서 차라리 현재 대내외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을 활용하는 방안이 관측됐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축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답을 ‘그릇’이 없고, 앞서 얘기한 광명시, 광주광역시의 사례처럼 “인천에서 왜 록페스티벌을 하려하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도시개발정책 차원의 ‘사운드시티’ 계획이 나온 것을 보고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을 포함한 ‘국제 규모의 문화예술 이벤트’를 답을 수 있는 적절한 ‘그릇’이 나왔다는 생각을 했다.

대중음악 관계자로서 ‘사운드시티’ 정책을 추진하려는 인천광역시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광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잘 참고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 현재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구체적인 사업안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명확한 인식 부분인 것 같다.

한국에서 지자체가 ‘도시개발정책’의 일환으로써 ‘대중음악’을 사업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그간 세 번 있었다. 그리고 어찌하다보니 개인적으로는 그 세 번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상황이다. 첫 번째는 광명시의 경우인데, 민선 2~3기 시장을 지낸 백재현시장이 2000년 무렵 ‘음악도시’를 표방하면서 대중음악을 과감하게 핵심적인 도시개발정책으로 정했다. 알다시피 2000년은 한국에서 음반시장이 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시기여서 ‘대중음악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광명시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사운드 시티, 새로운 문화아젠다와 인천의 대중음악 유산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5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사운드 시티, 새로운 문화아젠다와 인천의 대중음악 유산

인천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재즈, 스윙 등 초기 서구 대중음악이 빠르게 도입되었고, 90년대 초까지 한국 록음악의 인큐베이터 도시로서 번영하였던 한국 대중음악 유산의 보고인 도시이다.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당시의 '핫 플레이스'였던 부평지역에서 록 밴드의 리더로서 유명 연주클럽 '락캠프'를 운영해 온 정유천 인천 밴드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신성희(이하 신)

2010년 그러니까 작년 무더웠던 여름내내, 인천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새 시장의 공약사업들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표제의 정책 아젠다로 개발하기 위해 한동안 시청 관계 공무원분들과 발표와 토론을 거듭하며 '소통과 나눔의 문화도시'와 함께 새로운 문화정책 의제가 되었습니다.

정유천(이하 정)

저도 인천시나 관계 군구의 문화정책에 관여하고 있지만, 음악과 소리에 관한 공공정책이 표면화되었다는 것이 참 생소합니다. 무척 반갑네요.



인천밴드연합회 정유천 회장

신 저도 매우 보람있었지요. 인천시는 민선 5기의 인천의 취약한 분야를 채워나가고 잠재된 가치를 키워나가자는 취지에서 청각 및 음악분야의 예술 및 문화자원을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사운드 시티, 인천'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전까지 한국에서 인천은 '악기'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였으나 영창과 삼익 등유수의 악기제조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고 있지요. 무엇보다 인천은 한국의 주요 광역시중 '음악대학'이 없는 도시로서의 문화적 빈곤함이 있습니다.

'미술(시각)'과 함께 양대 예술축인 '음악(청각)'분야의 불균형이 존재하구요, 인천의 문화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는것이지요.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정책의지에 오점이 된다고 봅니다.

정 인천의 부평은 요즘에는 그자취마저 사라져서 그렇지 사실 홍대지역에 클럽들이 모여들기 전에 더 먼저 클럽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 저도 요즘 <사운드 시티 조성을 위한 음악자원 육성정책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중인데, 조사하다보니 부평이 주한미군기지의 영향으로 1950~60년대 재즈와 팝, 스윙 등 서구 음악을 유입한 선도적인 지역으로서 대중음악사적 뿌리를 지닌 곳이었더라구요. 부평에 클럽들이 많았던 것도 미군부대의 영향이었다고 보아야할까요?

정 그렇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마치 셔틀버스가 운행되듯 미군부대 트럭이 시간대 별로 클럽마다 픽업하고, 또 가수나 밴드들은 그 트럭이 오가는 시간에 맞춰 클럽들을 옮겨다니고 출퇴근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럽들이 많았던 부평일대는 밴드와 보컬리스트들의 거주지가 되기도 했어요.

'송골매'와 같이 1970~1980년대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인지도가 높은 밴드의 '보컬' 중에는

인천출신이 많아요. 과거 부평의 클럽문화를 설명해주는 것 중의 하나이지요. 또 우리나라에 “한류”라는 말이 회자되기 전인데, ‘사하라’라는 인천 밴드가 있었어요. 이 사하라가 당시 밴드음악의 선진지 중의 하나인 일본에 진출했거든요. 일본에 권위있는 대중음악평론지에 기록적인 평점을 받았을 정도로 전설적인 밴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고요.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1999년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로 시작한 ‘펜타락페스티벌’은 이제 대표 록 음악 축제로서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이 크고 성대한 음악축제에서 인천사람과 인천음악을 찾을 수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인천밴드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제 자신이 밴드의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밴드 음악인들의 망명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인천의 축제인 펜타락페스티벌의 무대에 서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겨우 오전 타임에, 관심이 없는 시간의 무대에 올라 자존심 하나로 저희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신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인천시에서도 펜타락페스티벌 추진방식의 개선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방안에 대해서 저도 연구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것처럼 대규모 축제를 지역안에서 어떻게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정 펜타락페스티벌의 주인이 외부화되는 것은 인천 지역만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문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현재 음반제작에서 음악성을 중시하는 뮤지션들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 인프라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결국 문화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을 얘기하면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지원책을 떠올리는 데, 이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핵심은 이들에게 활동(창작, 음반제작, 공연 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더, 인디 뮤지션들은 음악으로는 절대로 생계를 해나갈 수 없어 ‘밥벌이 따로, 음악 따로’하는 생활을 해 나갑니다.

신 네. 아무리 뛰어난 개인, 아티스트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음악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라고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지원정책은 공공이나 정부가 그들에게 월급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활동에 관한 인프라-제작, 홍보, 유통, 공연이 ‘동네’나 지역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 ‘국내’를 넘어 ‘해외스케일’로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일테구요. 인천의 음악적 유산, 한국의 음악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긴 지원의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가령, 일본처럼 라이브클럽이 전국에 산재해서 뮤지션들이 기본적으로 공연과 음반홍보에 문제가 없다면 지원책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 대담/기록 : 신 성 희(도시경영연구부 책임연구원)



인천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재즈, 스윙 등 초기 서구 대중음악이 빠르게 도입되었고, 90년대 초까지 한국 록음악의 인큐베이터 도시로서 번영하였던 한국 대중음악 유산의 보고인 도시이다.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당시의 ‘핫 플레이스’였던 부평지역에서 록 밴드의 리더로서 유명 연주클럽 ‘락캠프’를 운영해 온 정유천 인천 밴드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공사·공단과 시정현안 간담회 개최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5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 연구원 공사·공단과 시정현안 간담회 개최

- 인천도시개발공사, “검단신도시와 경인아라뱃길의 연계방안” 구축해야
- 인천교통공사, “대중교통 관련 업무수행을 통한 정체성 확립방안” 필요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기획본부 주관으로 관내 공사·공단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추진중에 있다. 자치단체의 정책수요를 직접 청취하고, 연구사업 채택 및 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시정현안 간담회에 이은 연속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13 양일에 걸쳐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간담회에서 이춘희 사장은 ①공사에서 건설한 공동주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의 확대·재생산·집단화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민원관련 Multi System 구축”, ②검단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아라뱃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교통체계·녹지네트워크 등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검단신도시와 경인아라뱃길의 연계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제안하는 한편,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 시차원에서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의 개선작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교통공사와의 간담회에서 박규홍 사장은 ①서북부 제2터미널 건립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②시에서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들이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현 상태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나 교통정책 수립 등 “인천교통공사의 대중교통 관련 업무수행을 통한 정체성 확립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제안했다.

김민배 원장은, 연구원에서는 공사·공단과 협업을 통한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이제 지친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할 시기이므로 지역현안 중 매듭지을 것은 신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교통공사의 경우는 지역 및 사업의 여건별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수단 선정에 따른 첨예한 이해갈등과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인천메트로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연구원 신규사업발굴과 기존사업성과분석 등 전문적인 경영자문 제공할 것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메트로(사장 이광영)와 지난 17일, 인천메트로 영상회의실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인천의 도시교통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의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와 관련, 업무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하게 되었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분야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메트로 이광영 사장은 간담회에서 ①공사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보완 및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 제고방안, ②인천시 교통 수송분담율 조사, ③인천지하철 2호선 운영시 시설물 최적관리방안, ④영종도 자기부상열차운영 참여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연구원이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인천메트로의 신규사업 발굴, 기존사업 성과분석, 경영혁신 방안모색 등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양 기관은 녹색 도시철도 실현을 위한 국내외 선진사례 공동조사는 물론,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정책공조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 중구와 시정현안 간담회 개최

중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영종 미개발지의 도시계획 수립 필요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중구를 끝으로 시정현안 간담회를 마쳤다. 지난 18일에 개최된 중구 간담회에서 김홍복 중구청장은 ①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영종 미개발지의 도시계획 수립, ②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접근체계 개선방안, ③월미도 친수공간 조성방안 등을 구정현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김민배 원장은, 「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선 중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이 정비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연구원 관내 현안지역 사람 및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19일, 연구원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적합한 현안과제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자 인천시 현안지역에 대한 현장 시찰을 실시했다. 이날, 연구원 직원 40여명은 가정오거리(루원시티)-인천대학교 (도화 도시개발사업)-송의운동장-배다리 지역-만석동 갯이부리마을 등을 차례로 시찰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박사들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연구원 중구 쪽방촌 봉사활동으로 온정 나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23일 오후, 성미가열사회복지관 소속 푸드마켓과 연계해 중구 쪽방촌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에 나선 연구원 직원들은 팀을 나눠 가구별로 전달할 음식물을 포장하고, 식품별 유통기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생활용품들을 담은 바구니 등을 마련해 독거노인 가정, 조손 가정 등에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며 온정을 실천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인,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기획본부 주관으로 관내 공사·공단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추진중에 있다. 자치단체의 정책수요를 직접 청취하고, 연구사업 채택 및 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시정현안 간담회에 이는 연속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13 양일에 걸쳐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5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최초의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

인천도시브랜드센터 박선영 초빙연구원

최초의 미술사학자, 우현



우현 고유섭(1905~1944)은 처음으로 한국의 미학미술사를 전공한 최초의 미술사학자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한국 근대미술학과 미술사 연구의 길을 개척한 학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으며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이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조선 문화 연구의 길을 굳건히 실천해 나가며 독시적인 저항을 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왜 어려운길을 갔을까. 우현은 우리나라의 미술을 이렇게 표현했다.

“조선의 미술은 민예(民藝)적인 것이며 신앙과 생활과 미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순전히 심미적인 감상만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미술이자 곧 종교요, 미술이자 곧 생활이라는 표현이다. 그는 어떤 생을 겪으며 민족의 문화로서 미술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현은 당시 일류대학인 경성제국대학 출신이다. 졸업 후는 진로를 보장받는 탄탄대로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로를 벗어나 조선의 미술사라는 아무도 가지 않은 숲을 향해 길을 내고자 하였다. 그 이유를 인천에서 보낸 그의 생애 속에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우현은 당시 동인천에서 한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동네인 용리에서 태어났다. 인천공립보통학교(현창영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때에는 높은 성적이었으나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병치레를 자주하기도 하고 성적이 점점 떨어졌다고 하며 졸업할 무렵에는 반항적이었다고도 한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해석도 있다. 우현은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당시의 우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시인 배인철의 형 배인복의 말에 따르면 만세를 부른 후 동네를 돌다가 체포되었으며, 사흘째 되던 날 큰아버지가 찾아가 겨우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인천문화재단은 이 모습을 통해 우현이 이 당시 이미 뚜렷한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유추한다. 그는 서울에 있는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다니며 통학을 하는 기차 속에서 독서와 사색을 즐겼다고 한다. 당시 인천의 기차통학생들은 친목도모와 운동을 명분으로 1919년[한용단]을 조직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경 우현도 [한용단]의 진보적 문인이었던 고일², 정노풍, 진중혁 등과 함께 인천에서 문화운동을 펼쳤다. 보성고보시절의 문학적 독서는 우현에게 근대적 교양 습득의 원천이었으며 예술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보성고보를 졸업한 우현은 경성제대에 문과에 진학하였고, 학업과 함께 [오명회], [문우회]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문학작품을 다수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모임의 학생들과 함께 민족정신을 찾는 방안을 토론하였다고 한다. 당시 그가 발표한 「경인팔경」, 「해변에서 살기」, 「애상의 청춘일기」 등의 문학작품은 인천문화운동사의 첫페이지를 여는데 일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25년 경 우현은 인천문화운동을 널리 퍼뜨렸던 [경인가차통학생 친목회]의 중심인물이 되어 단체를 이끌어간다. 이 단체는 꾸준히 회원이 증가하고 활동이 활발해지자 경찰의 감시와 탄압이 노골화되어 회합을 갖기도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을 보면 우현에게 인천은 아늑한 고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근대 문명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드는 항구도시, 제국주의의 식민지 전진기지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쓴 「해변에서 살기」를 보면 근대사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린 인천의 모습을 거센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옛 성터도, 옛집의 주춧돌마저 없어져 슬픈 현실로 표현하고 있다.



부인 이경옥, 장녀 고병복, 그리고 우현 (왼쪽으로부터)

[해변에서 살기] 부분

고유섭¹

고인(古人)의 미추홀은 해변이지요
그러나 성터는 보지 못해요
남치는 물결이 삼켜 있다가
배앗고 물러갈 쟈 백사(白沙)만 남겨요

나의 옛집은 해변이지요.
그러나 초석조차 볼 수 없어요
서방(西方)으로 밀쳐드는 물결이란
참으로 슬퍼요 해변에 살기

인천의 문화를 탐구하던 그는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1933년 29세가 되는 해 우현은 개성박물관장으로 부임하여 이윽고 한국 고미술의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그는 “고미술이야말로 여유 있던 이 땅의 생활력의 잉여잔재가 아니라 누천년간 가난과 싸우고 온 끈기 있는 생활의 가장 충실된 표현이며, 창조이며, 생산”이라 칭하였다. 그의 주요 논문 대부분은 그가 관장으로 있던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 발표되었으며, 고려의 고도(古都)였던 개성의 유적과 유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때 그의 미술사연구의 초점의 하나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석탑에 대한 연구로서, 삼국 중 백제와 신라, 통일신라 때의 석탑들을 양식론에 입각하여 체계화하였다. 그가 죽은 뒤 연구결과를 모아 책으로 간행한 것이 《한국탑과(韓國塔婆)의 연구》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고대 조형(造形)을 질과 양으로 대표하는 탑파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 논의이며, 우리 미술사연구에서 처음 보는 역작이다.



경북 김포의 우현 기념비

한국미술사연구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는 학자가 인천이 고향이라는 건 크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개항의 본거지였던 인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민족 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1905년에 태어나 해방 한해 전인 1944년에 요절한 그는 인생을 일제식민지하의 나라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다. 우현은 본인의 삶을 온전히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나라의 근원인 한국의 문화를 탐구한 것이 아닐까. 인천시립미술관 마당 앞에는 우현 고유섭의 추모비와 동상이 세워져있다. 인천시는 우현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05년 에 주관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우현 고유섭의 생애와 연구자료전” 전시를 통해 그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나 이런 대학자가 한낱 연예인 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다. 1999년 동인천에 우현로 라는 길 이름이 명명된 것과 우현선생이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낸 용동역큰우물터만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뿐이다.

¹본 글은 2006 인천문화재단 발간 '우현 고유섭의 생애와 연구자료전 도록'을 참고하여 인천의 생애에 초점을 두고 재구성한 것임
² 인천석급의 저자.



우현동상

우현 고유섭(1905~1944)은 처음으로 한국의 미학미술사를 전공한 최초의 미술사학자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한국 근대미학과 미술사 연구의 길을 개척한 학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으며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이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조선 문화 연구의 길을 굳건히 실천해 나가며 목시적인 저항을 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왜 어려운길을 갔을까. 우현은 우리나라의 미술을 이렇게 표현했다. “조선의 미술은 민예(民藝)적인 것이매 신앙과 생활과 미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해명단청박물관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5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해명단청박물관



해명단청박물관 전경

시절인연(時節因緣).
평생 만남에서 하룻밤 못정까지,
관직과 돈도 마찬가지,
인연은 다 때가 있는 법이라 했다.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舊開港場文化區)에 위치하고 조금 걸어가면 신포시장과 가까운 해명단청박물관. 근대역사문화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일까, 촉촉한 봄비는 거리의 운치를 돋구어주더군요. 박물관을 오르면으로는 차이나타운에서 시작하여 인천한국근대최초사박물관,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인천아트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문화고리가 있고, 왼편으로는 인천의 옛명동으로서 상업적인 번영을 누렸던 신포시장, 위로 올라가면 월미도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자유공원에 닿지요.



단청을 꾸미는 5가지 색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단청 분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정성길 관장이 자신의 호를 따서 만든 민간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단청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건조물을 비롯하여 각종 공예품과 조각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장에 오색채료(五色彩料: 청, 적, 황, 백, 흑)를 칠하여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미는 것을 단청이라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널리 사용됐던 단청은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동시에 목재의 부식을 막기 위한 기능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화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단청은 나무에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청을 하려는 바탕에 청록색을 바릅니다. 문양을 그리고 바늘구멍으로 윤곽선을 만듭니다. 그것을 바탕면에 대고 분주머니를 두드리면 본에 있는 송곳 구멍으로 가루가 나와 문양이 그려지고 여기에 오색을 칠해

단청을 하려는 바탕에 청록색을 바릅니다. 문양을 그리고 바늘구멍으로 윤곽선을 만듭니다. 그것을 바탕면에 대고 분주머니를 두드리면 본에 있는 송곳 구멍으로 가루가 나와 문양이 그려지고 여기에 오색을 칠해 완성을 시키는 것이죠. 박물관에 오면 이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청은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단청에는 붉은 색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지요. 유교문화에 따른 왕권강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찰 단청은 어떨까요? 마침 이곳에서 개관 2주년 기념으로 사찰단청을 비교하는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 사찰인 전등사와 정수사의 단청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지요. 두 절은 우리의 대표적인 건물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있고, 단청이 변천돼가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지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단청 형식을 볼 수 있는 정수사 단청의 문양은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지요. 전등사 단청은 화려하게 발전된 조선 중기 이후의 다양한 단청문양을 보여줍니다.

박물관은 2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2층에는 불상과 탕화도 함께 전시되어 있지요. 박물관의 마지막 코스는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일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천정에 매달린 풍경을 한 번 치는 것이죠. 박물관을 나오니 비가 산들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온갖 소음에 섞이더라도 한번 쯤 오색의 단청으로 눈을 맑게 하고 풍경소리로 귀를 씻을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이고 행복이 아닐까요. 중구 문화지구를 걸으며 탐욕을 다잡아봅니다.

꽃은 향기로 비우고 나비는 춤으로 비운다.



글 조승현 연구위원 사진 석중수 연구위원

국제경양식

옛날식 돈파스가 있는 노스탈지어의 경양식



혜명단청박물관의 빛 고운 자태와 청아한 풍경소리에 눈과 귀가 맑아졌으니, 입이 호사를 누릴 차례. 예스러운 곳을 다녀온 탓인지, 조금은 촌스럽고 유치한 '경.양.식'집이 떠올랐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독세 속에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경양식이란 이름을 걸고 4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의 '국제경양식'이 오늘의 추천 맛집이다.

외관부터 '경양식'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무어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묘하게 아련한 기분으로 식당 입구를 들어서면, 오래된 조명과 역시 연식이 꽤 돼 보이는 의자와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여느 레스토랑처럼 빵과 밥, 크림스프와 야채스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세는 빵과 크림스프. 빵은 리필은 안되며, 추가시 천원을 받는데, 아박하다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금방 만들어 올린 듯 부드럽고 따뜻하며 톡톡한 맛을 자랑한다. 함께 나온 사과잼과 버터를 발라 먹거나 고소하고 진한 크림스프에 찍어 먹으면 추가주문은 자연스러워진다.



국제경양식의 인기 메뉴는 단연 돈까스다. 두툽한 고기에 빵가루 골고루, 고소하게 입힌 튀김옷, 그리고 실망하지 않을 크기까지... 돈까스 전문점에서 파는



여느 돈까스와는 또다른 바삭함이 있다. 겉돌며 나오는 양배추샐러드와 감자튀김, 잘게 깎둑썰기한 익힌 당근과 노란단무지까지도 정겹다. 그리고, 안심스테이크는 보기엔 다진 양파가 듬뿍 올려진 소스 덕분에 함박스테이크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소스 아래 스테이크를 보면 족히 3cm는 될법한 두께에 진한 육즙이 배어나와 식감을 더한다. 후식으로는 탄산음료와 커피가 있는데, 커피 또한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마시는 그 커피 그대로 프림통, 설탕통이 함께 제공된다.

국제경양식은 오랜 전통과 변치 않는 맛 때문인지,

단골손님이 많다. 특히 나이 지긋하신 분들, 소위 격동의 청춘기를 보낸 7080세대들이 옛 추억을 나누고, 와인 대신 맥주와 소주로도 경양식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을 즐겨 찾으신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돈까스 때문에 가족단위 손님도 많아서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국제경양식이 확장 이전도, 인테리어도 현대식으로 바꾸지 않고, 50년, 60년... 내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손님들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향수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립 표	
MENU	
[정식]	
안심스테이크 (국내산)	24,000
비프커틀렛 (호주산)	13,000
생선가스 (수입냉동 갈매)	13,000
함박스테이크 (배고기)	13,000
돈까스 (국내산 보릿축)	11,000
후라이포테이토	6,000
빵/밥(추가)	1,000
아채/크림소프(추가)	1,000
[주류]	
레드와인	30,000
화이트와인	25,000
맥주/소주	3,000

☆주소:인천시 중구 선화동 35-3/전화번호:032-772-0088

글 장순지 사진 석종수 연구위원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에 위치하고 조금 걸어가면 신포시장과 가까운 해명단청박물관. 근대역사문화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일까, 축축한 봄비는 거리의 운치를 돋구어주더군요. 박물관을 오른편으로는 차이나타운에서 시작하여 인천한국근대최초사박물관,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인천아트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문화고리가 있고, 왼편으로는 서울의 명동에 비견될 만큼 상업적인 번영을 누렸던 신포시장, 위로 올라가면 웰미도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자유공원에 닿지요.

'창조적인 문화 도시'로 재탄생한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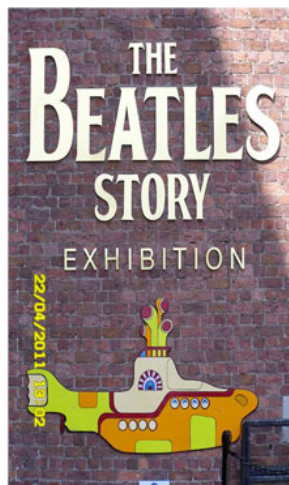
영국 북서부 랭커셔 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리버풀'은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영국에서 런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박물관과 갤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팝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비틀즈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틀즈의 초창기 활동 주무대이기도 했던 이곳에는 성지(聖地) 순례를 온 전세계의 음악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나, 문화 자산과 비틀즈의 유산만으로 리버풀이 성공적인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아니다. 18세기 노예무역의 중심지로 번성을 누리던 리버풀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산업 구조의 변화를 침체기를 겪으며 급기야 1970-80년대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폐허의 도시로 몰락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리버풀 시 당국은 '문화 유산을 활용한 도시 재건'이라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지역 예술 기관과 민간 기업, 지역 주민들과 합심하여 전면적인 도시 디자인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 관광 도시로 재탄생한 것이다.

리버풀 시는 과거 폐쇄되었던 항구 앨버트 독(Albert Dock)에 현대 미술관 테이트 리버풀, 해양 박물관, 비틀즈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박물관인 비틀즈 스토리를 세우고 레스토랑,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입주시켜 거대한 문화 단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비틀즈 음악 기행을 테마로, 비틀즈가 과거 정기적인 라이브 공연을 펼친 캐번 클럽, 멤버들의 생가(生家),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페니 레인(Penny Lane) 거리, 스트로베리 필즈(Strawberry Fields) 정원 등을 순례하는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 버스(Magical Mystery Tour Bus)를 운행하여 음악 팬들을 위시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음악 페스티벌도 리버풀이 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를 부흥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매년 5월, 리버풀 시내 30여개의 공연장에서 열리는 '사운드 시티 페스티벌(Sound City Festival)', 캐번 클럽과 비틀즈 팝이 준비하게 들어서있는 매튜 스트리트에서 매년

8월 열리는 무료 거리 음악 축제인 '매튜 스트리트 페스티벌(Mathew Street Festival)'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리버풀은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UNESCO World Heritage Site)와 2008년 유럽의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며 2008년 이후 런던과 에든버러와 함께 영국의 3대 관광 도시로 도약하였다. 리버풀의 문화 도시로서의 성공은 단지 문화 자원을 보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상품성을 극대화 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2010.07.28 한국일보 [세계의 소프트시티를 가다] <9>리버풀-폐쇄됐던 항구가 유럽의 문화수도로
- 2010-11-01 서울신문 [뉴 시티노믹스 시대-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산업혁명 선두 자부심 갖춘 리버풀
- Liverpool City Council <http://liverpool.gov.uk/>
- Visit Liverpool <http://www.visitliverpool.com>
- Magical Mystery Tour <http://www.beatletour.org/>
- Sound City Festival <http://www.liverpoolsoundcity.co.uk>
- Mathew Street Festival <http://www.mathewstreetfestival.org/>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5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엔아트 발전방향에 관한 사례연구(2009)

■ 연구 배경

본 연구는 2009년도에 조사된 것으로, 인천엔아트 사업이 현재 존립하고 추진되고 있는 기본적인 틀과 전제들을 대체로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특히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APO)' 및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존립 문제 및 운영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응책의 모색을 위하여 인천종합예술회관의 의뢰에 따라 유관 사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음.

■ 주요 내용

빈 심포니의 사례에서, 카라얀의 집중 조련을 통해 빈 필하모닉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 것처럼 카리스마 있고 통솔력 있는 지휘자가 상주하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지휘자에게 예술성 향상을 위해 전권을 주면서 경영적 측면에선 전문 경영인이 통솔하는 재단법인화의 체제가 뒷받침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립운영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현재의 부정기적인 '예술고문' 시스템은 개선해 나가야 함.

인천시 대표 교향악단의 운영방향

① 독립운영체제 확립		② 예술감독 상주화
연주	경영의 분리	상주화 거부—객원 예술감독제로 전환

또한 기존의 인천시향과 APO가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스턴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보스턴 팝스오케스트라의 관계, 그리고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사례의 검토를 통해서 한 도시 및 지역을 대표하고 지방정부 및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수의 교향악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음.

APO는 서울시향과 같은 독립적 운영체제를 통해 공연과 경영이 분리된 형태로 존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인천시향과 APO의 관계설정에 대한 몇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이번 연구는 2009년도에 조사된 것으로, 인천엔아트 사업이 현재 존립하고 추진되고 있는 기본적인 틀과 전제들을 대체로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특히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APO)' 및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존립 문제 및 운영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응책의 모색을 위하여 인천종합예술회관의 의뢰에 따라 유관 사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인천의 공연예술분야 현황

2010년 6월에 인천문화재단이 발간한 2009년 인천문화예술연감에 따르면 2009년도 인천에서 진행된 공연의 총 수는 874건이다. 공연예술분야의 구성은 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기타로 크게 나누어진다. 음악에서는 연주, 합창, 오페라, 컨서트 등, 연극부분은 연극, 아동극, 인형극, 마임 등, 뮤지컬부분은 뮤지컬, 어린이뮤지컬, 영어뮤지컬 등이 포함된다. 무용부분은 현대무용, 발레 등이 포함되며 기타부분은 예술제, 축제, 기예단, 마술공연, 대중음악 등이 포함된다.



인천의 공연예술분야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음악부분이 3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공연의 36%이며 기타부분의 공연이 181건(20.7%), 연극이 168건 (19.2%), 뮤지컬부분이 151건(17.3%), 무용부분이 59건(6.8%)을 차지한다. 무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연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영향이 크며 무용부분에서는 인천시립무용단의 비중이 커 개별 무용가와 단체의 공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주체는 크게 공공단체(시립예술단, 구립예술단, 문화회관예술단 등)와 민간단체(극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연주단 등), 개인 및 기타단체, 학생 및 교사로 나눌 수 있다. 2009년도에는 민간단체의 공연이 595건(68.1%), 공공단체가 121건(13.8%), 개인 및 기타단체가 114건(12.9%), 학생 및 교사가 44건(5.2%)이며 2008년도에 비해 개인 및 기타단체 부분은 다소 공연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이 이루어진 공간의 성격에 따라 공연을 분류하면 전체 공연 중 716건(81.9%)이 공공문화공간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연예술문화에서 공공문화공간의 기여가 크기도 하지만 반대로 민간문화공간의 부족함을 보여준다. 월별 공연예술활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12월에 114건(13.1%)으로 가장 많은 공연이 진행되었고, 8월과 10월도 각각 100건(11.4%), 92건(10.5%)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08년에 비해 8월의 공연수가 늘어난 것은 이 역시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영향으로 보인다. 1~3월은 공연예술활동이 모두 5% 내외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달들은 7~9%의 비중을 보인다.

